

와카야마로의 입구

정유지 (한국 경제학부1학년)

와카야마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처음 와카야마와 만나는 곳은 역이다. 와카야마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역을 거치기 마련이다. 나도 나가노현의 마츠모토에서 와카야마에 처음 왔을 때, 처음으로 받을 디딘곳이 난카이와카야마역이었다. 역은 그 지역의 출입구이자, 그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얼굴이기도 하다. 그때문에 나는 어느 지역을 가도 처음 그역에 도착한 순간에 느끼는 인상과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일본에 2009년에와서 ,2년동안 나가노현의 마츠모토시에서 생활했다. 고모가 마츠모토시에 살고있다는 이유로 나는 마츠모토가 어떤 분위기를 가진 도시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기대반 걱정반으로 ,마츠모토역에 도착했다. 내가 처음 느낀 마츠모토역은 작았지만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다니는, 그리고 밝고 활기가넘쳐나는, 마치 나를 환영하고있는듯한 모습이였다. 역가까이에는 높은 빌딩들과 호텔이 줄서 있지만, 깔끔히 정돈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다. 마츠모토역의 특징은 역에서 나오면 바로 백화점과 술집이 모여있는 점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20분정도 걸으면 마츠모토를 대표하는 마츠모토성이 기다리고있다는 점이다. 마츠모토시는 와카야마보다 시골이고, 작지만 나는 마츠모토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마츠모토를 좋아하게 되버렸다.

내가 와카야마에 처음 방문한것은 올해 3월이였다. 그때는 와카야마대학의수험시험을 치루기 위해 왔었는데, 당시에 와카야마에는 아는 사람에 단 한명도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호텔과 교통을 알아보고 예약하지 안으면 안돼었다. 조사해본 결과, 와카야마에는 JR와카야마역, 난카이와카야마시역이 있었는데 ,나는 난카이와카야마시역 가까이에 있는 호텔을 선택해 예약했다. 와카야마대학까지의 교통이 편리했던 것도 있었지만, 왠지 와카야마시를 대표하는 중심가일 것 같다는 기대를 했었기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처음 난카이와카야마시역에 도착해 떠올랐던 것은 “회색” 이였다. 겨울이었던 탓도 있었겠지만, 사람도 전혀 없었고 역 앞에 늘어서있는 가게들은 대게가 문이 닫혀있어 오히려 외로움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느낀 와카야마의 첫인상이였기 때문에 솔직히 와카야마에서 생활해보기 전까진 실망감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와카야마에 이사하고나서부터 와카야마시는 JR와카야마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이 잘 모이지 않는 난카이와카야마시역은 왠지 와카야마시의주민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난카이와카야마역을 더 활기가 넘치는, 음악이 흐르는 역으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난카이와카야마시역이 외로워보이는 것은 물론, 사람이 적은 탓도 있지만, 사람의 수에 비해 넓은 길이 와카야마시역을 더 위로워 보이게하고 있다. 나는 와카야마의 이런 특징을 장점으로 생각해서 역을 발전시키고싶다. 마츠모토역가까에 있는 큰 카페 옆에는 작은,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거기서 주말이 되면 대학생밴드나 아님 음악학원에 다니고있는 사람들의 무대로서 사용되고있다. 그래서 바로 마츠모토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잡아, 마츠모토역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고 음악이 흐르는 곳이였다. 난카이와카야마시역은 게다가 도로가 넓기 때문에 마츠모토역보다 좋은 환경이고 , 또 교통이 매우 편리하기때문에 조금만 이런 공연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밴드와 학원등에서 주최하는 무료공연등으로 인해 , 그 음악은 사람들은 불러내, 난카이와카야마시역은 밝고 활기가 넘치는 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점점 역 주변의 가게들의 경제가 원활이 부흥할 가능성도 있다. 그 외에도 주말에만 길에서 시장을 열거나 프리마켓을 여는 것도 난카이와카야마시역이 주민에게 더 사랑받는 한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와카야마시와 마츠모토시는 닮은듯하면서도 실제로 생활해보면 전혀 다른 제각각의 특징을 가지고있다고 나는 느꼈다. 마츠모토에는 번화하고 활기 넘치는 역이 있는 반면 , 와카야마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내가 처음 와카야마와 만났을 때, 느꼈던 와카야마의 인상은 좋지 않았지만, 와카야마에서 생활하면서, 표면에는 보이지않는 와카야마의 매력에 빠져 행복한 매일매일을 보내고있다. 또 와카야마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평생 잊을수없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있다. 실제로 생활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숨겨진 와카야마의 매력을 더 모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나도 와카야마의 주민중 한사람으로써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내가 지금 와카야마에 제안하는 이 한마디는 작은 목소리에 불가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서 , 와카야마가 전국에서 더 사랑받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본다.